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0995

2011년 2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25현 가야금을 활용한 창작국악 지도방안 연구

-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를 대상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지 혜

25현 가야금을 활용한 창작국악 지도방안 연구

-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Creative Korean Traditional music Teaching Method Application on 25-stringed-Gayaguem Focusing on Grade Music Text Book of Middle School

2011 년 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지 혜

25현 가야금을 활용한 창작국악 지도방안 연구

지도교수 서 영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지 혜

김지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지 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 영 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한 나	인

2010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제2절 연구방법 및 제한점 ·····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창작국악의 의의 ·····3

제2절 창작국악의 변천과정 ·····4

제3절 가야금의 유래와 개량과정 ····· 6

제4절 25현 가야금의 구조 및 조율법·····10

제5절 25현 가야금의 연주법·····19

제 3 장 25현 가야금을 활용한 창작국악 지도방안

제1절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창작국악곡 분석····27

제2절 25현 가야금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안 ····28

제 4 장 결론 ·····46

참 고 문 헌

표 목 차

<표 1> 창작국악의 변천과정 · 4
<표 2> 중학교 1학년 16종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창작국악 가창곡 · · · · · · 27
<표 3> 창작국악 <산도깨비>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 · · · · · · · · · · · 34
<표 4> 창작국악 <봄>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 · · · · · · · · · · · · · · · 43

악 보 목 차

[악보 1] 김희조 작곡 봄의 찬가1마디~3마디 · · · · · · · · · · · · · · · · · · · 14
[악보 2] C음이 으뜸음인 조율법· 14
[악보 3] 김희조 작곡 봄의 찬가 2악장 31마디~33마디· · · · · · · · · · · · · 15
[악보 4] F음이 으뜸음인 조현법 · 15
[악보 5] 이건용 작곡 한오백년 1마디~4마디 · · · · · · · · · · · · · · · · · · · 16
[악보 6] A♭음이 으뜸음인 조율법 · 16
[악보 7] 이준호 작곡 바람강 1마디~4마디 · 17
[악보 8] E♭음이 으뜸음인 조율법 · 17
[악보 9] 김은경 편곡의 산바람 강바람1마디~4마디 · · · · · · · · · · · · · · · 18
[악보 10] G음이 으뜸음인 조율법 · 18
[악보 11] 김희조 작곡 봄의찬가 중에서 · 23
[악보 12] 강상구 작곡 비 오늘날 중에서 · 24
[악보 13] <산도깨비> 왼손 반주 · 31
[악보 14] <산도깨비> 양손 반주 · 32
[악보 15] <산도깨비> 반주악보 · 33
[악보 16] <봄> 왼손 반주 · 38
[악보 17] <봄> 양손 반주 · 39
[악보 18] <봄> 반주악보 · 41

그 림 목 차

[그림 1] 신라의 토우 · · · 7
[그림 2] 양이두 · · · 7
[그림 3] 담괘 · · · 7
[그림 4] 25현 가야금 구조 · · · 12
[그림 5] 손가락 번호 · · · 19
[그림 6] 2번 뜯기 · · · 20
[그림 7] 2번 뜯고 놓기 · · · 20
[그림 8] 1번 뜯기 · · · 21
[그림 9] 3번 뜯기 · · · 21
[그림 10] 4번 뜯기 · · · 21
[그림 11] 2-1 이어뜯기 · · · 22
[그림 12] 3-1 이어뜯기 · · · 22
[그림 13] 4-1 이어뜯기 · · · 22
[그림 14] 튕기기 · · · 22
[그림 15] 튕기고 난 후 · · · 22
[그림 16] 연튕김 준비 · · · 23
[그림 17] 3번 튕김 · · · 23
[그림 18] 2번 튕김 · · · 23
[그림 19] 아르페지오 · · · 24
[그림 20] 농현자세 · · · 25
[그림 21] 왼손 뜯기 · · · 26
[그림 22] 왼손1-2 이어뜯기 · · · 26
[그림 23] 왼손 1-2-3-4 이어뜯기 · · · 26
[그림 24] 왼손 4번 뜯기 · · · 32
[그림 25] 왼손 1-3번 뜯기 · · · 32
[그림 26] 양손 반주자세 · · · 32
[그림 27] 왼손 4-3-2-1 이어뜯기 · · · 38
[그림 28] 양손반주자세 · · · 39
[그림 29] 아르페지오 자세 · · · 39

ABSTRACT

(A) Study on Creative Korean Traditional music Teaching Method Application on 25-stringed-Gayaguem

- Focusing on 1st Grade Music Text Book of Middle School -

Kim Ji Hae
Advisor : Prof. Seo Young Hwa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revised Korean music textbook in 2007 of 1st grade in middle school covers various parts of Korean music compared to the past. Especially, creative Korean music has been given more weight. Creative Korean music not only reflects the comtemporary lives and thoughts but also can motivate music students make them more familiar to Korean music thanks to the interesting elements of creativeness.

Just as Western music has its past and present, Korean music should have both past and present. Our music which is being produced in days of our lives at this moment will remain as our traditional folk music in the future, and we cannot overlook this f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a guidance for teachers to educate music students by using 25-stringed-gayagum which is revised for people to be familiar to the instrument. This will eventually bring a better future for creative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nd the composition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rough reviewing reference on the subject, I present the definition of creative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gayageum and their historical context.

Second, for teachers to use 25-stringed-gayagum in actual classes, I suggested the tuning method through sample score and tuning score.

Third, I included the basic playing styles and methods with pictures and directions to guide how to play 25-stringed-gayagum.

Fourth, after reviewing 16 music textbooks in current 1st grade of middle school to see how the creative Korean music has been presented, I analyzed two of the most often taught songs and suggested a teaching/educating course and playing method.

Although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must be done traditionally by using traditional instruments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on it, this is far from reality in actual music classes. I hope this research practically can be used by teachers at schools to educate Korean traditional music.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온갖 시련을 갖고 있는 역사와 조상들의 희노애락의 삶, 정서가 음악적으로 승화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악교육은 국악을 이해함으로써 민족정서를 함양 하고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민족성을 일깨울 수 있다.

1987년 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국악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제 7차 교육과정 음악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악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음악교과서 전체 중 30~40%의 내용이 국악으로 구성되었다.(국립국악원, 2002: 4)

그러나 이러한 실정과 반비례하여 교육의 일선 현장인 학교에서는 국악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 음악교육계의 교육방법이 서양음악 교육방법에 의존하여 우리음악을 설명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한국음악이란 명칭아래 서양음악도 아니고 국악도 아닌 혼혈의 음악을 탄생시키고 있다.(이성천, 1991: 292)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교육과정은 전통적 영역에서 한발자국 발전해 그 전통의 계승뿐만 아니라 창작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한 국악과 서양음악의 연계성을 발전시킴으로써 서양음악을 전공한 교사들에게 거부감 없는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식의 작곡법이 많이 활용된 창작국악을 중심으로 국악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교사들을 위해 국악기 중에서 가야금에 초점을 맞춰 가야금의 역사와 변천사를 알아보고 창작곡이 생겨남에 따라 개량되어진 악기 중에서 가장 활발

하게 연주되고 있는 25현 가야금의 구조, 기본 수법과 연주법, 반주법을 통해 중학교 1학년 음악 창작국악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7음 음계로 구성된 25현 가야금의 장점은 기존 12현의 5음 음계처럼 눌러내지 않아도 되며 피아노 악보를 보듯 그대로 악보를 읽으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라 하더라도 피아노가 익숙한 교사라면 기본수법을 익혀 연주할 수 있다. 또한 음량과 음역이 확대되어 음악에 대한 표현력이 넓어졌으며 화성연주에도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 25현 가야금은 그 발전 가능성에 비해 학술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5현 가야금을 활용하여 창작국악에 접근함으로써 국악분야를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2007 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창작국악곡을 25현 가야금을 반주로 활용하여 수업하고자 한다. 그 방법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국악과 다른 창작국악의 정의를 내려보고 변천과정을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둘째, 가야금의 역사와 종류의 변천과정을 문헌을 통해 알아보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는 개량가야금 중에서 25현 가야금에 제한을 두고 기본 주법과 반주법을 연구하였다.

셋째, 2007 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16종을 분석하여 가장 많이 수록된 창작국악곡 2곡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넷째, 현직 교사들이 연주 할 수 있도록 기본주법에 기준하여 필자가 편곡한 반주법을 제시하고 악보화 하여 수업시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에서 가야금 초보자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25현 가야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기본 수법을 비롯하여 연주방법의 설명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여 연주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창작 국악의 정의

창작 국악이란 말의 어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창작은 '예술적 감흥을 문예·회화·음악 등의 작품으로써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일.' 이며 국악은 '그 나라의 고유한 음악, 우리나라의 고전 음악.'이라고 명시 되어있다.(이희승, 1974: 2501, 325) 창작과 국악이 더해지면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낸 나라의 고유한 음악' 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양식을 기반으로 새로 창작된 음악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국악에서 창작이란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1940년 김기수의 "황화만년지곡"이 작곡되면서부터 이다.[1] 그 이후 작곡자가 생겨났고 연주형태도 실내악, 관현악, 성악곡, 독주곡 등으로 다양화 되었으며 연주의상도 홍주의에서 한복으로 한복에서 서양식으로 변화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창작국악의 특징으로는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연주해오는 동안에 다듬어지는 전통 국악과는 달리 주로 한 사람의 작곡자 개인의 생각을 음으로 표현하되, 국악 음계와 장단, 가락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서양음악의 형식을 빌려 가락을 전개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이 융합되어 국제화 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다양해진 표현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의 핵심적인 내용인 장단의 특징, 전통 음조직 구조, 가사와 리듬의 관계의 적절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

1) 이 곡은 일본기원 2600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당시 (1940)년에 이왕직 아악부에서 아악의 동경 연주를 계획하면서 창작곡 공모를 하였는데 이 때 당선된 작품이다. 이 곡은 일본 황실을 기리는 황화만년지곡이라는 한시를 가사로 한 성악곡으로 1940년 11월 9일 부민관에서 가창 발표 때에 초연 되었는데 본 곡의 내용상 우리의 창작음악의 역사에서 제외하였다. 윤소희, (2001), 「국악창작의 흐름과 분석」, (서울: 국악춘추사), 10쪽 참조.

과거의 전통음악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호흡한 것처럼 이 시대의 국악도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윤중강, 2004: 14)

지금은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던 시기가 아닌 이미 정착하였고 우리의 것도 수출하는 시대이다. 그만큼 서양의 것도 우리 화 시켜 창작을 이루어 내야하며 우리의 것을 세계화 시키는 창작을 이루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창작국악은 전통적인 국악기를 기초로 작곡된 현 시대의 음악으로 서양문화와 전통문화의 융합 후 정착기에 다다른 현 시점의 현대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창작국악은 기본적인 요소들의 서양음악과 유사함으로서 서양음악을 전공한 교사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기에 좀 더 창의적인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제2절 창작국악의 변천과정

창작국악의 변천과정을 <표 1>와 같이 연도별로 특징을 정리하여 생겨난 계기와 발전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살펴본다.

<표 1> 창작국악의 변천과정

연도	특징
1940~1950 태동기	41년 - 김기수의 <세우영> 발표 기보법 - 서양식의 오선보 위에 우리말이나 우리 식의 부호를 만들어 혼용 연주의상 - 홍주의에서 옥색두루마기로 바꿔 입음

1960 여명기	60년 - 신국악작곡공모로 신인 작가 등장 63년 - 최초의 가야금 독주곡집 출판 최초의 국악창작곡집 출판 66년 - 윤이상의 '예악' 67년 - 최초의 개인 작곡 발표회 69년 - 국악원의 신작공모를 문공부가 맡아 문예창작공모가 국악작곡으로 변모
1970 활성기	73년 - 서울대 음대 국악작곡 전공 학생들의 제1회 국악작곡발표회 74년 - 제1회 한국음악 창작발표회, 국악창작곡집 제1집 발간 76년 - 제2국악창작곡집 '속고가신조' 발간 77년 - 대한민국 작곡상
1980 성찰과 정돈	82년 - 한국창작음악연구회 발족 85년 - KBS국악관현악단 창단, 슬기둥 창단 87년 - 국악동요제 개최, 중앙국악관현악단 창단. 88년 - 국악동요, 국악가요 부각 90년 - 성악곡 창작
1990 대중화	90년 - 김영동의 신수제천(신디사이저 편성) 96년 - KBS주최 대학국악제, 국악작곡축제 98년 - 오혁의 야인
2000 퓨전	퓨전국악 대회 개최 드라마 ost, 가요등 대중음악과 접목

국악 창작곡의 첫 곡은 1941년 김기수 작곡의 <세우영>이다. 이 곡에서 기존의 국악과 다른 악기의 주법을 사용하여 획기적인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아쟁은 전통적인 활을 사용하는 주법에서 탈피하여 피치카토 주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거문고는 개방현의 응용방법과 장구의 선율에 의한 장단변화가 다양하게 시도되는 등 새로운 창작이 시도되었다.

1940년부터 1950년대에는 김기수에 의해 국악창작이 시작되는 시기로 그 당시 나라의 상황이 반영되는 표제적이고 민족적인 곡들이 대편성의 관현악곡이 주가 되었으며 서양식 음악이 유입이 되어 오선보 위에 우리말이나 우리식의 부호를 만들어 혼용하였고 합주를 할 때 지휘를 내세워 전체악곡의 흐름을 관장하게 하였다. 연주의상도 홍주의에서 옥색한복으로 바뀌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다.

1960년대에는 창작의 기반을 다져가는 시작의 단계로 신진 작곡가들이 나타났으

며 창작에 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전통에 기반을 두어 작곡되었다기보다 서양적인 면모가 짙어 국악창작이라고 하기엔 미흡한 곡들이 많은 시기였다.

1970년대에는 60년대의 기반이 점차 활성화 되는 시기로 서울대 음대 작곡전공 학생들이 작곡 발표회를 열면서 젊은 작곡가들이 나타났다. 창작발표회와 국악창작 곡집 발간, 대한민국작곡상등 창작에 질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로 김영동과 박범훈을 통해 대중적인 곡들이 나타났고 서양의 양식과 전통의 계승이 두루 갖추어 작곡되는 틀을 잡기 시작했다.

1980년대는 서양음악계에서도 국악작곡을 하기 시작했다. KBS를 시작으로 전국시, 도립 국악 관현악단의 창단으로 국악창작이 더욱 활발해 졌으며 국악가요, 국악 창작동요 등 새로운 장르가 생겨났고 서양의 악기와 국악기가 혼합편성 되고 개량 가야금이 출현하는 등 음역과 음량의 확대로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1990년대는 80년대에 개량된 악기들에 의한 창작곡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로 전통음악과 대중적인 가요, 재즈, 등 퓨전국악의 모습이 나타났으며 신디사이저의 등장으로 관현악에 큰 이변이 생겼다.

2000년대에는 전자음향, 서양음악, 재즈,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와 국악이 접목되어 가면서 퓨전국악이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악기도 개량화 되어 새로운 음색과 음량이 증폭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움을 추구하는 국악인들이 모여 연주활동을 하는 그룹이 많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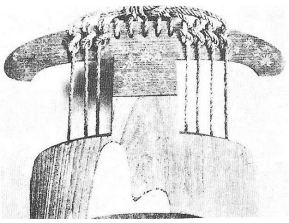
제3절 가야금유래와 개량과정

국악에 창작곡들이 생겨나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악기를 개량화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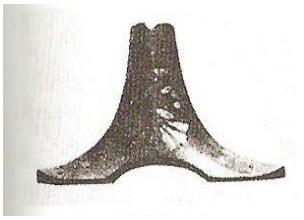
점이다. 서구의 음악이 들어오고 그것이 국악에 반영되어 창작곡이 생겨나는 시기에 창작되어지는 곡에 따라 악기의 개량화가 시작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은 개량이 진행된 악기는 가야금이다.

가야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사기」 악지에 전하는 기록을 근거로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만들어 우륵에게 명령하여 열 두곡의 곡을 만들도록 하였고 나중에 우륵은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진 것을 알고서 악기를 가지고 신라 진흥왕에게 의탁하니 진흥왕이 그를 받아들여 신라의 대표적인 현악기가 되었다. 이때의 악기형태는 신라의 토우 ([그림 1] 참조)에서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알 수 있는데 '양이두' ([그림 2] 참조)라는 부분과 열두 줄을 받치고 있는 '담괘' ([그림 3] 참조) 라는 부분을 봤을 때 현행 풍류가야금이라는 법금과 똑같이 생겼다.(송방송, 1984: 61, 63)

[그림 1] 신라의 토우
(출처: 한국음악통사
사진 9-나)



[그림 2] 양이두
(출처: 한국음악통사
사진 11-나)



[그림 3] 담괘
(출처: 한국음악통사
사진 11-다)

민속악이 발전하는 19세기말에 산조의 등장으로 현의 간격이 좁아지고 크기도 작아지면서 맑고 가는 음색과 화려한 선율연주에 용이한 산조가야금이 생겨났다.

산조가야금은 가야금병창, 무용반주, 노래반주 등에 다양하게 쓰였는데 특히 무용 반주에 활용하기 위해 박성옥[2]이 명주로 만들었던 현을 음량확대를 위해 금속 소재로 바꾼 철가야금으로 변형되기도 했다.

1960년대 초부터 가야금의 개량이 본격화 되었는데 가야금의 명인이었던 성금연이 작곡하면서 그것에 따른 음역을 늘리고자 만들어진 13현, 14현, 15현[3]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산조가야금에서 줄의 수만 늘어난 형태로 13현과 14현은 활용되지 못하였고 15현 가야금은 기존의 산조가야금의 음역에서 제 1현과 제 2현 사이에 현이 추가 되었고 제 3현과 4현 사이에 현이 추가 되었으며 마지막 현이 추가되어 총 3음이 늘어났다. 이는 악기의 음역만 늘어났을 뿐 음량의 변화가 없으며 연주상 주법이나 명주 현을 사용하는 것 은 12현 가야금과 동일하다.

1985년 작곡가 이성천[4]에 의해 보다 넓은 음역 대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곡을 연주하고자 21현 가야금이 개량되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개량가야금으로 자리매김한 25현 가야금이 만들어지는 원형이 되는데 명주실로 만들었던 현에서 폴리에스테르를 합성한 합성 현을 주로 사용하였고 부들이 없어지고 현침을 덧 대어 돌괘로 연결하였다.

1986년부터 17현 가야금이 연구되어 개량되었는데 연주가 황병주가 악기장 박성기에게 의뢰하여 만들어 졌다. 5음계로 기존의 12현 가야금에 저음부 2현과 고음부 3현을 추가로 늘렸다. 15현과 마찬가지로 12현의 조율법을 그대로 차용하지만 음량

---

2) 박성옥에 대해서는 김해숙, 「산조연구」(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41쪽 참조
3) 성금연(1923~1986)에 의해 개량 <1968/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 산조 예능 보유자>
4) 이성천(1936~2003), 서울대학교 교수, 국립국악원장 역임.

과 음역이 확대되면서 좀 더 폭넓은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 현재에도 5음계의 창작곡 연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1987년에는 박범훈[5]에 의해 고음, 중음, 저음가야금을 활용한 중주곡이 작곡되면서 악기장 고홍곤에게 의뢰하여 악기의 크기와 음역을 다른 3대의 가야금이 제작되었다. 저음가야금은 기존의 풍류가야금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제작할 수 있고 중음가야금은 기존의 산조가야금으로 활용하며 고음가야금은 기존의 가야금에 비해 폭과 길이가 모두 짧아진다.

이후 박범훈은 1989년에 18현 가야금도 제작하였으나 17현 가야금에서 1현만 늘어난 형태로 잘 쓰이지 않는다.

1995년에 들어서면서 박범훈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면서 22현으로 개량하여 7음계의 3옥타브로 조율을 하였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새산조가 있다.

1994년 가야금 연주가 김일륜[6]이 악기장 조정삼에게 의뢰하여 25현 가야금을 제작하였다. 7음음계로 제작된 22현 가야금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22현의 영향으로 25현이 개량 되었다고 잘못 알려있으나 25현 가야금은 김일륜이 1992년 대만인 웅벌모에게 쟁을 배우고 그 이후 김성삼에게 23현으로 된 연변가야금을 배우면서 25현의 필요성을 느껴 제작하게 되었다. 음양의 조화에 맞도록 가운데 줄을 기점으로 하여 위아래 각각 12줄씩 배치한 '슬'의 구조에 착안하여 25현이 되었다.

7음 음계로 조율한 목적은 전조와 이조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창작음악의 표현력을 증대시키며 국제적인 악기들과의 앙상블을 위한 것이다. 더불어 정악청의 맨 아래음인 $E^{\flat}$부터 산조청, 민요청을 커버하기 위해 7음 음계로 조율하여 국악기가 필요로 하는 여러 장르의 음역을 한 대의 악기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즉,

5) 박범훈(1948~), 피리연주자, 작곡자,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중앙대학교 총장
6) 김일륜(1962~), 가야금 연주자, 중앙대학교 교수

25현 가야금의 7음음계의 조율체계는 5음 음계 체계의 악기와의 차이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5현을 위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무대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 1998년이다. 25현을 위한 작품으로는 이건용의 한오백년, 백대웅의 몽금포 타령 등이 있다.

제4절 25현 가야금 구조 및 조현법

본 연구는 25현 가야금을 처음 접하는 교수자들을 위해 악기의 구조를 살펴보고 악기의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곡에 따른 조율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25현 가야금 악보집 김해숙 25현 가야금 연습곡집 <법고창신>, 정길선 가야금창작음악작품집 1, 김은경의 초보자 연습곡집 세 권을 바탕으로 연구하였으며 김해숙 25현 가야금 연습곡집 <법고창신>에서 김희조 작곡의 봄의 찬가 1악장과 2악장, 이건용 작곡의 한오백년, 정길선 가야금창작음악작품집 1에 수록된 이준호 작곡의 바람 강, 김은경의 초보자 연습곡집에 수록된 김은경 편곡의 산바람 강바람의 조율체계를 연구하였다.

1. 25현 가야금 구조

1)울림통

앞판과 뒤판, 테두리를 통틀어 울림통이라고 한다. 앞판에서 안족을 통하여 전달된 줄의 음을 공명시켜 확대하는 역할을 하며 뒤판에는 반달과 해 모양의 세 가지 울림구멍이 있어 울림통 안에서 형성된 음파를 공간에 전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줄

12현 가야금에서는 명주실을 꼬아 만들지만 25현 가야금에서는 폴리에스테와 명주를 같이 꼬아 만든다.

3)안족

각 줄이 일정한 음을 유지하도록 밑에 버티어 놓은 것으로 기러기발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4)좌단

가야금 앞판의 맨 우측 머리 부분으로 가야금을 연주하는 오른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한다.

5)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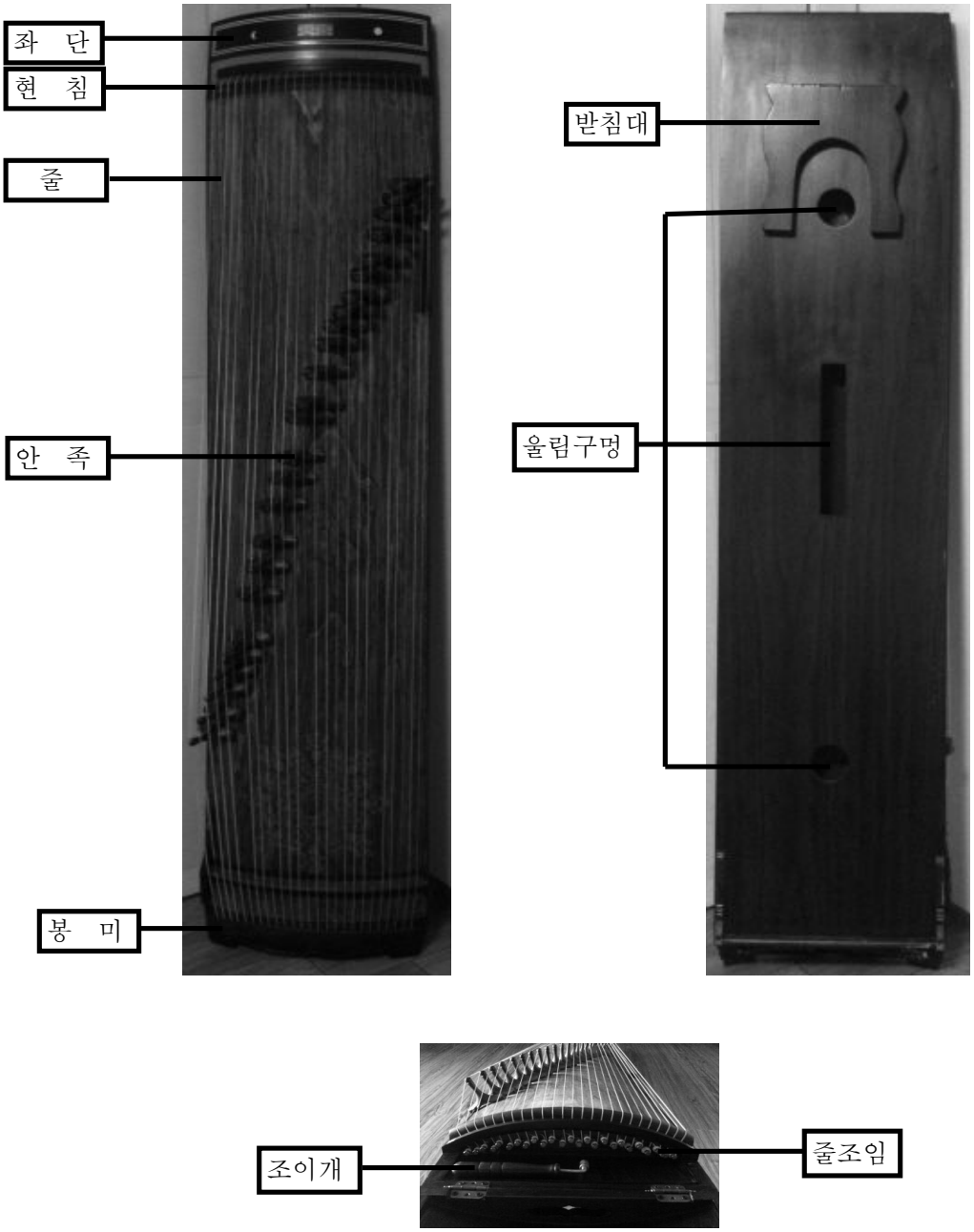
좌단의 바로옆에있는 1.5cm 정도 높이의 둥근 대이다. 25개의 홈이 파여 있어서 줄을 앞판으로부터 떨이지게 하여 줄이 진동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앞판에 덧붙인 것으로 기타의 브리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6)봉미

가야금의 끝부분으로 악기의 모양새를 장식하고 25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그 구멍으로 줄과 돌괘를 연결한다.

7)줄조임

12현 가야금과 다르게 25현 가야금은 조이개를 통해 줄을 조율할 수 있다.



[그림 4] 25현 가야금 구조

2. 25현 가야금 조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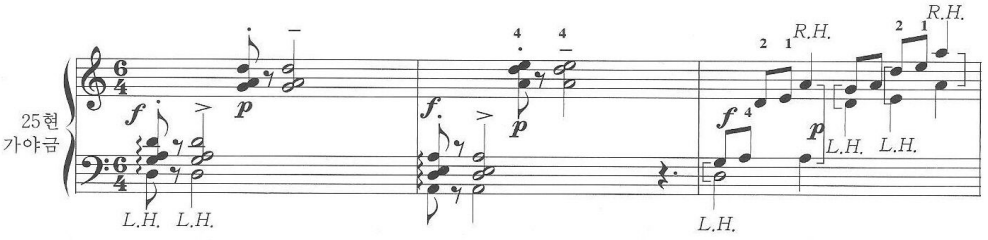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25현 가야금을 처음 접하는 교수자들을 위해 악기의 구조를 살펴보고 창작곡 5곡의 악보 일부분을 제시하여 각 곡의 조에 따라 조율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25현 가야금 악보집 「김해숙 25현 가야금 연습곡집 <법고창신>」, 「정길선 가야금창작작품집 1」, 「김은경의 초보자 연습곡집」세 권을 바탕으로 「김해숙 25현 가야금 연습곡집 <법고창신>」에 수록된 <봄의 찬가> 1악장과 2악장, 「정길선 가야금창작작품집 1」에 수록된 이준호 작곡의 바람 강, 「김은경의 초보자 연습곡집」에 수록된 김은경 편곡의 산바람 강바람의 조율체계를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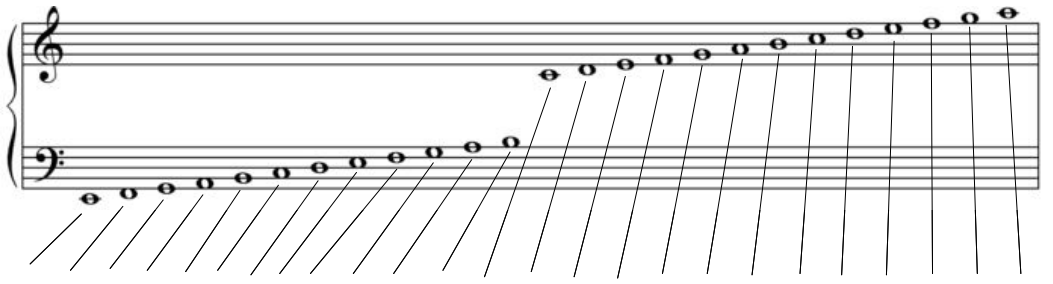
가. 봄의 찬가(김해숙, 2002: 33)

김희조 작곡의 <봄의 찬가>는 1악장에서 C음이 으뜸음인 조현법으로 시작하여 2악장에서 타령조로 바뀌면서 F음이 으뜸음인 조현법으로 전조된다. 여기서는 1악장 C음을 으뜸음으로 조율하는 법을 제시하며 [악보 1]은 연주를 위해 제시한 것이 아닌 곡의 조에 따른 조율법을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1마디부터 3마디까지 제시 하였다.

[악보 1]은 C음이 으뜸음인 곡이다. 조율할 때 제1현을 낮은음자리표 아래첫째 줄 E, 제2현을 낮은음자리표 아래첫째 칸 F, 제3현을 낮은음자리표 첫째 줄 G, 제4현을 낮은음자리표 첫째 칸 A, 제5현을 낮은음자리표 둘째 줄 B, 제6현을 낮은음자리표 둘째 칸 C, 제 7현을 낮은음자리표 셋째 줄 D로 조율하여 제8현부터 제 25현까지 제1현부터 제7현까지를 기준으로 한 옥타브씩 올려 [악보 2]와 같이 조율한다.([악보 1], [악보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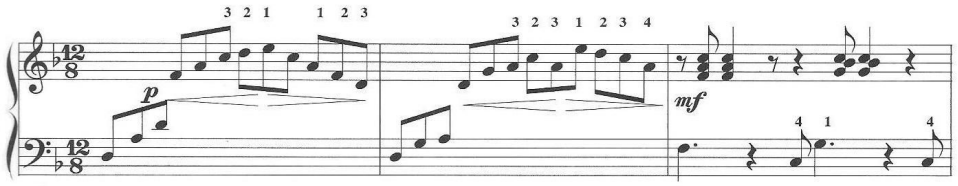
[악보 1] 김희조 작곡 봄의 찬가1마디~3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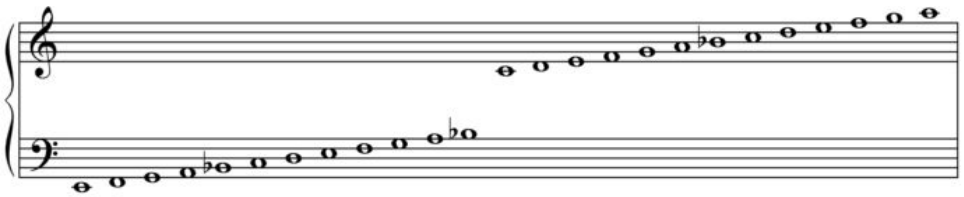
[악보 2] C음이 으뜸음인 조율법

나. 봄의 찬가 2악장(김해숙, 2002: 35)

1악장에 이어 2악장을 연주할 때 C음이 으뜸음인 조에서 F음이 으뜸인 조로 전조된다. 이 때 제5현, 제 12현, 제19현을 B$^{\flat}$으로 조율한다.([악보 3], [악보 4] 참조)



[악보 3] 김희조 작곡 봄의 찬가 2악장 31마디~33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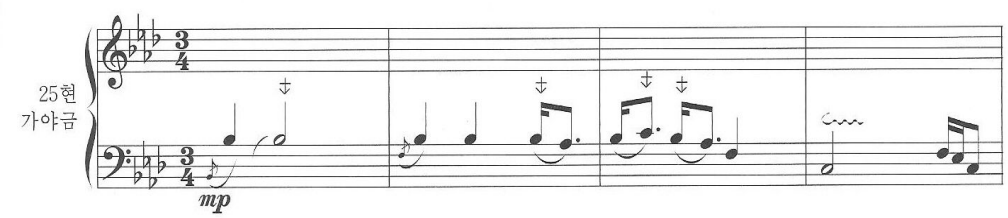


[악보 4] F음이 으뜸음인 조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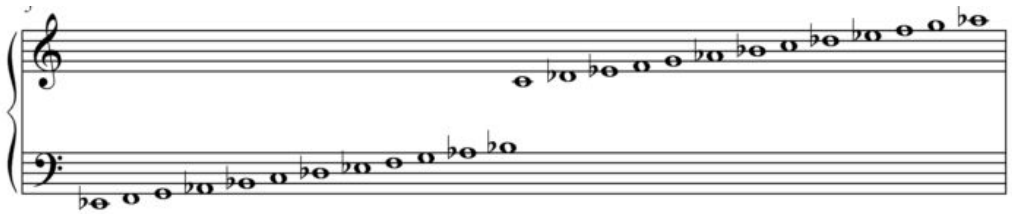
다. 이건용 작곡 한오백년(김해숙, 2002: 65)

이건용 작곡의 <한오백년>은 A♭을 으뜸음으로 작곡된 곡으로 조율법을 [악보 6]과 같이 제시한다.

A♭음이 으뜸음인 조에서는 E, A, B, D음에 '♭'이 붙는다. 따라서 제1현, 제8현, 제15현, 제23현에 E♭으로 조율하고 제4현, 제11현, 제18현, 제25현에 A♭으로 조율하며 제5현, 제12현, 제19현에는 B♭으로, 제7현, 제14현, 제21현에는 D♭으로 조율한다.([악보 5], [악보 6] 참조)



[악보 5] 이건용 작곡 한오백년 1마디~4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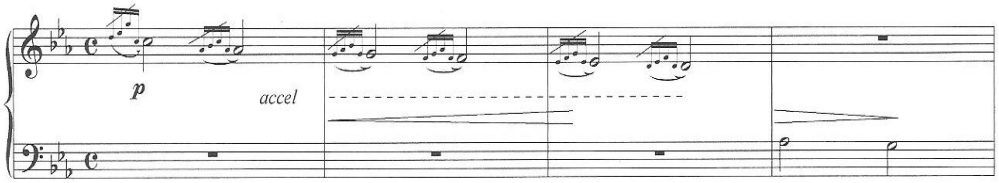


[악보 6] A♭음이 으뜸음인 조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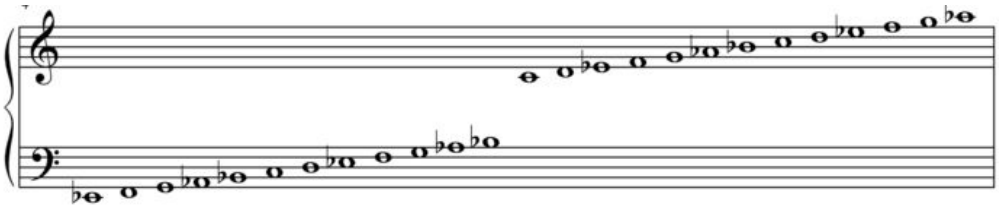
라. 이준호의 바람 강(정길선, 2005: 11)

이준호 작곡의 <바람 강>은 E♭음을 으뜸음으로 작곡된 곡으로 조율법을 [악보 8]과 같이 제시한다.

E♭음이 으뜸음인 조에서는 E, A, B음에 '♭'이 붙는다. 따라서 제 1현, 제8현, 제15현, 제23현에 E♭으로 조율하고 제4현, 제11현, 제18현, 제25현에 A♭으로 조율하며 제5현, 제12현, 제19현에는 B♭으로 조율한다.([악보 7], [악보 8] 참조)



[악보 7] 이준호 작곡 바람강 1마디~4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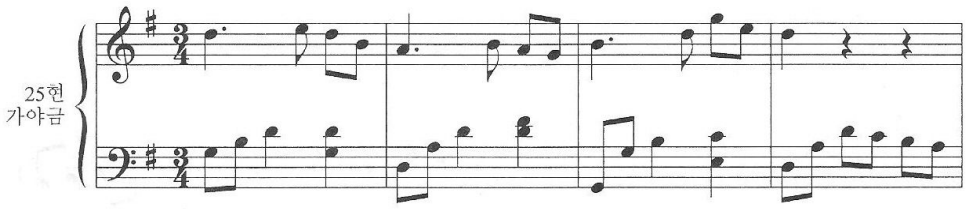


[악보 8] E♭음이 으뜸음인 조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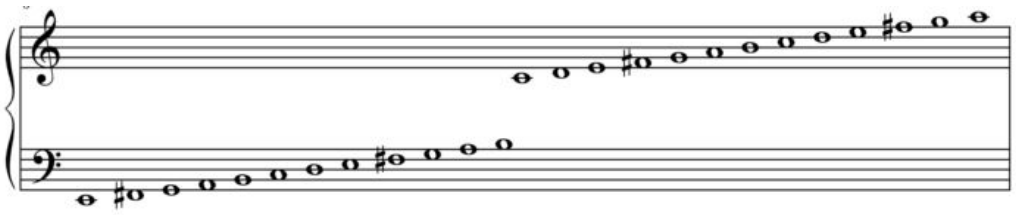
마. 산바람 강바람(김은경. 2002: 92)

김은경 편곡의 <산바람 강바람>은 G음을 으뜸음으로 편곡된 곡으로 조율법을 [악보 10]과 같이 제시한다.

G음이 으뜸음인 조에서는 F음에 '#'이 붙는다. 따라서 제2현, 제9현, 제16현 제23현에 $F^{\#}$으로 조율한다.([악보 9], [악보 10] 참조)



[악보 9] 김은경 편곡의 산바람 강바람1마디~4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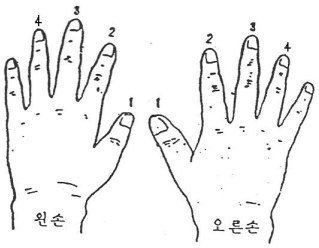


[악보10] G음이 으뜸음인 조율법

제5절 25현 가야금의 연주법

본 논문에서는 현직교사들이 피아노연주를 하며 서양식의 가창지도를 하는 것처럼 국악분야도 7음계가 사용되는 25현 가야금을 이용하여 국악의 음색을 쉽게 이해하고 연주 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기 때문에 전문 연주자들을 위한 세분화된 연주법을 연구하기보다 초보자가 연주할 수 있는 연주법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선율을 연주하는 기본적인 오른손 수법과 반주를 하는 왼손 수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연습곡을 제시하였다.

1.손가락 번호



[그림 5] 손가락 번호

엄지손가락을 1번, 집게손가락을 2번, 중지 손가락을 3번, 약지 손가락을 4번으로 표기하며 손가락 번호에 기준하여 연주하도록 하며 이후 손가락이름은 생략하고 번호로 쓴다.

가. 오른손 수법

1) 뜯기

● 한줄 뜯기

하나의 손가락으로 줄을 뜯었다 놓아 소리 내는 수법으로 전통 가야금 주법에서 처음 익히는 2번으로 뜯는 연습부터 시작한다.

현침에 새끼손가락과 일치하도록 놓고 계란을 가볍게 잡은 것처럼 손을 동그랗게 만든 후 2번의 손톱 옆에 1번을 붙이고 뜯고자 하는 줄과 손가락의 각도가 60도 정도 되도록 한 후 줄을 뜯는다. 뜯을 때 직선으로 위로 드는 것이 아니라 현침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뜯는다.

다음 [사진 3], [사진 4]는 2번으로 뜯었다 놓는 모습이다.

[그림 6] 2번 뜯기

[그림 7] 2번 뜯고 놓기

1번, 3번, 4번을 뜯을 때 주법수행의 기술적 요구에서 2번으로 뜯을 때와 같은 원리로 뜯는다

[그림 8] 1번 뜯기

[그림 9] 3번 뜯기

[그림 10] 4번 뜯기

1번 뜯기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손가락 마디를 세워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하며 뜯고 난 후 위로 들어주어야 한다.

3번과 4번 뜯기를 할 때 엄지는 2번 옆에 가지런히 붙여놓는다.

- 이어 뜯기

두 줄 이상의 줄을 손가락을 바꾸면서 연결하여 뜯는 주법이다. 낮은음에서 높은음으로 올라가며 이어 뜯을 수도 있고 높은음에서 낮음으로 내려가며 적용할 수도 있으며 한 호흡으로 연결하여 연주한다.

이어 뜯기에는 두 줄 이어 뜯기, 세 줄 이어 뜯기, 네 줄 이어 뜯기, 또는 그 이상 이어 뜯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줄, 세 줄, 네 줄 이어 뜯기에 대해 연구한다.

줄 이어 뜯기는 음정이 2~3도 간격으로 올라갈 때는 2번에서 1번으로 이어지고 내려올 때는 1번에서 2번으로 이어진다.

음정이 3도 간격으로 올라갈 때는 3번에서 1번으로 이어지고 내려올 때는 1번에서 3번으로 으로 이어진다.

음정이 4도 이상 간격으로 올라갈 때는 4번에서 1번으로 이어지고 내려올 때는 1번에서 4번으로 이어진다.

[그림 11] 2-1 이어 뜯기

[그림 12] 3-1 이어 뜯기

[그림 13] 4-1 이어 뜯기

2) 튕기기

엄지손가락으로 둘째손가락을 둥글게 쥐고 손을 편안히 좌단 위에 놓은 상태에서 튕기려고 하는 줄 바로 위에 엄지손가락을 놓고 위로 향하여 튕긴다. 이 때 팔에는 힘을 주지 말고 둘째손가락에만 힘을 주어야 하며, 좌단 위에 놓인 손을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튕기는 부호는 오선보의 음표위에 'O'로 표시한다.

[그림 14] 튕기기

[그림 15] 튕기고 난 후

● 연튕김

같은 줄을 3번과 2번이 연속으로 튕겨 소리 내는 주법이다. 튕기기 할 때와 같은

자세에서 3번을 2번 옆에 같이 걸어 3번을 먼저 튕기고 2번을 튕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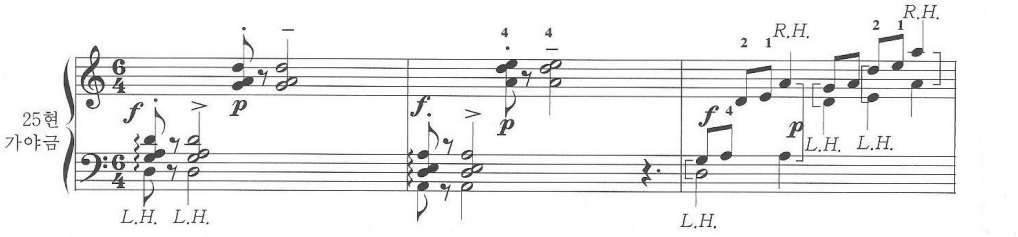
[그림 16] 연튕김 준비

[그림 17] 3번 튕김

[그림 18] 2번 튕김

3) 아르페지오

화음을 이루는 소리들을 아래부터 차례대로 빠르게 연주하는 장식음의 형태이다. 이어 뜯기의 수법을 빠르게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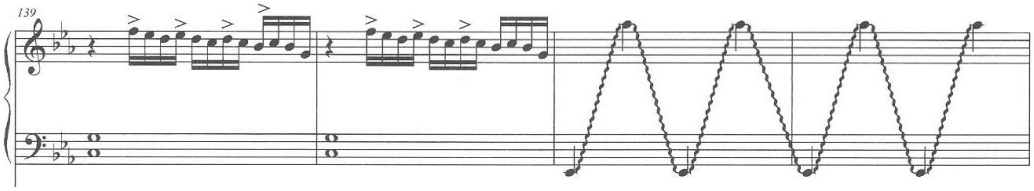
[악보 11] 김희조 작곡 봄의찬가 중에서

1번째 마디의 첫 음을 아르페지오로 연주할 때 줄을 잡는 법은 다음 [그림 19]와 같다. 음정에 맞게 줄을 잡은 다음 4-3-2-1의 순서대로 빠르게 연주한다.

[그림 19] 아르페지오

4) 글리산도

어느 음에서 다른 음으로 진행하는 파쎄지를 악센트 없이 미끄러지듯 연주하는 것으로 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아닌 무수히 많은 음을 통과하여 표현한다. 음을 상행과 하행으로 진행 할 수 있다.



[악보 12] 강상구 작곡 비 오늘날 중에서

141~142마디까지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하며 상행 진행과 하행 진행을 한다.

나. 왼손 수법

전통가야금에서 왼손수법은 음을 떨고, 꺾고, 구르고, 흘러내리는 등 오른손 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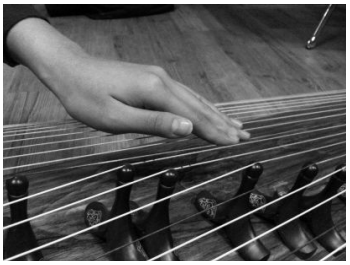
에서 음을 뜯거나 튕겨서 현을 울리면 그 음을 표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악기가 개량되고 그 연주법이 보다 풍부해 지면서 기존의 연주법을 유지하면서 왼손으로 뜯는 주법이 도입되어 다양한 주법들을 가지게 되었다.

1) 농현

전통가야금에서의 왼손 연주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연주를 할 수 있는 농현과 기본자세를 익히도록 한다.

왼손 2번과 3번을 가지런히 하여 오른손이 진행하는 줄의 안족에서 약 10cm 정도 떨어진 줄 위에 올려놓고 4번, 5번은 자연스럽게 붙여 놓는다.

농현 때 주의할 점은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줄을 누르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음을 떨어준다.



[사진 20] 농현 자세

2) 뜯기

왼손으로 뜯을 때는 오른손 뜯기와 원리적으로 같으나 손을 악기에 지탱하지 않

은 상태에서 손끝으로 줄을 떠올려 소리를 내는 점이 다르다.

[그림 21] 왼손 뜯기

[그림 22] 왼손1-2 이어 뜯기

[그림 23] 왼손 1-2-3-4 이어 뜯기

제3장 25현 가야금을 활용한 창작국악 지도방안 연구

제1절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16종 창작국악 분석

교육과정에 의한 '노래하기' 영역에서 한국 전통음악 중 민요를 제외한 시조, 작국악곡, 판소리, 기타 감상 곡을 분석해보면 창작 국악곡이 42곡 (42.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시조 16곡 (16.21%), 기타 감상곡 14곡 (14.19%), 판소리 2곡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국악곡이 제시되었는데 시조, 창작국악곡, 판소리, 듣고 따라 부르기 활동으로는 시조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창작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판소리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활동이 제시되었다.

<표 2> 중학교 1학년 16종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창작국악 가창곡

	교문	교학	금성	더택	두산	미래	박영	법문	BM	세광	지학	천재(백병동)	천재(민은기)	태림	태성	현대	곡수
산도깨비	o		o	o	o			o	o	o	o		o				9
봄			o	o				o									3
농악		o		o													2
어디로 갈거나			o										o				2
우리장단 배워보자				o			o										2
가시버시 사랑															o		1

구구단						o											1
국화 옆에서												o					1
남누리 북누리													o				1
반딧불		o															1
방울카드									o								1
생일 전날														o			1
오나라	o																1
아름다운나라										o							1
장단노래															o		1
합계	2	2	3	4	1	1	1	2	2	2	1	1	3	1	2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 16종에서는 현대음악 출판사를 제외한 15종의 출판사에서는 한곡이상의 창작곡이 실려 있었다. 총 28곡으로 출판사별로 중복되는 곡을 제외하면 15곡이 실려 있다. 16종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곡은 ‘산도깨비’가 8곡으로 가장 많이 제시 되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봄’이 3곡, ‘농악’, ‘어디로 갈거나’, ‘우리장단 배워보자’가 2곡, ‘가시버시 사랑’, ‘구구단’, ‘국화 옆에서’, ‘남누리 북누리’, ‘반딧불’, ‘방울카드’, ‘생일전날’, ‘오나라’, ‘아름다운 나라’, ‘장단노래’가 1곡씩 실려 있었다.

창작국악가요가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교과서는 ‘더 텍스트’로 4곡이실려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민은기외 2명집필)’ 이 3곡, ‘교문사’, ‘교학사’, ‘법문당’, ‘BM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도서출판 태성’이 2곡, ‘두산동아’ ‘미래엔컬쳐그룹’, ‘박영사’, ‘지학사’, ‘천재교육 (백병동외 4명집필)’, ‘태림출판사’가 1곡씩 실려 있었다. 현대음악교과서에는 1곡도 실려 있지 않았다.

제2절 25현 가야금을 활용한 창작국악 지도방안 연구

앞에서 설명했듯이 중학교 음악교과서 16종에 가장 많이 수록된 두곡을 선정하여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1. 창작국악 <산도깨비> 지도방안

1) 곡 영역별 분석

(1) 작곡가 조광재 (1954~)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을 수학 하였으며 1985년 '슬기둥' 창단맴버이자 대중음악과 국악의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작곡가이다. 주요작품으로는 산도깨비, 소금장수, 한국창작무용곡집, 환타지랜드등이 있고 최근 팝송을 국악기로 재해석하여 연주한 'Only One' 앨범도 제작하였다. 국악동요뿐 아니라 국악을 활용한 대중음악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를 이루고자 기여하고 있다.

(2) 반주

슬기둥[7]이 1990년 노래집을 통해 발표한 이곡은 국악실내악곡으로 연주되며 판소리풍의 국악창법으로 부른 곡으로 노래의 간주부분은 사물놀이나 장구의 반주로 연주되며 악기가 없을 때에는 구음으로 한다.

(3) 교과서별 분석

(주)교문사, (주)금성출판사, 더텍스트, 두산동아, 법문사, BM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주)지학사, 천재교육(민은기외 2명 집필) 총 9권에 수록이 되어있다.

---

7) 1985년 국악계의 미래를 짊어질 신세대 연주자 9명이 창단하여 국악의 대중화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한 신(新) 국악운동의 선두주자이며 전통음악의 현대화 작업을 통하여 국악의 대중화를 주도해 온대표적인 중견 실내악 단체이다. 뛰어난 연주력과 개성 있는 음악적 감각으로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전통음악의 멋과 향기를 선사해 오고 있으며 독창적인 레퍼토리 개발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음악세계를 펼쳐오고 있다. 창단 당시 작곡가 김영동과 함께 국악가요의 장르를 개척한 이후, 국악과 양악의 접목을 통한 실험적인 음악들을 과감히 시도해 국악 대중화의 방향을 제시하며 큰 성공을 거두어 왔다. 또한 급속도로 변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현대적 감수성을 주체적으로 흡수하여 새로운 음악의 주역이 되고자 노력해 왔으며 전통과 현대, 안과 밖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탈 코드화 작업을 통해 제한 받지 않는 우리 음악의 세계화 가능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 동안 400여회의 공연과 8장의 음반발매를 통해 발표된 슬기둥의 음악은 그 자체가 대중국악, 혹은생활국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사물놀이와 더불어 국악의 대중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장본인으로 평가 받고있다. 슬기둥의 대표곡인 산도깨비, 소금장수 등은 초등학교의 음악 교과서에 수록되어 어린이들의 국악교육에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슬기둥을 표방하는 젊은 후학들에게도 슬기둥 음악은 절대적인 표본이 되고 있다.

창작국악곡중 가장 많은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중학교 교과서 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어있으며 가장 대중화된 창작국악곡이다.

(주)교문사는 라장조 악보를 제시하였으며 굿거리장단의 장구 구음과 사물놀이 악기들의 구음을 익혀 노래하도록 하였다.

(주)금성출판사는 라장조 악보를 제시하였다.

더텍스트는 라장조 악보를 제시하였으며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신체표현을 하도록 악보에 그림을 넣었고 추임새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악보에 제시하였으며 전래동화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찾아 개사를 함으로서 창의적 표현을 제시하였고 전통국악곡과 창작국악곡의 차이점에 대한 개념도 발표하도록 하였다.

두산동아는 다장조 악보를 제시하였고 굿거리장단을 장단보로 제시하였다.

법문사는 라장조 악보를 제시하였고 굿거리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장단을 익히게 함으로서 장단에 심화과정을 추가하였으며 변형장단의 창작과 개사를 하여 표현하게 함으로서 창작부분도 구성하였다.

BM성안당은 다장조로 악보를 제시하였고 굿거리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장단을 익히게 함으로서 장단의 심화과정을 제시하였고 이 곡에 사용된 5음 음계를 사용하여 가락 짓기를 제시함으로서 창작부분도 구성하였다.

세광음악출판사는 라장조 악보와 굿거리장단을 제시하였다.

(주)지학사는 라장조 악보를 제시하였고 장구와 꽹과리, 징의 악보를 노래악보 아랫단락에 제시함으로서 타악이 주는 흥겨움을 잘 느낄 수 있게 제시하였으며 이 곡을 만든 국악실내악단 슬기둥의 설명도 수록되었다.

천재교육 (민은기 외 2명 집필)은 라장조 악보를 제시하였고 굿거리장단의 기본 장단과 변형장단을 익히게 함으로서 장단에 심화과정을 추가하였으며 창의적으로 신체표현을 하도록 몸동작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4) 음계

5음 음계로 '솔, 라, 도, 레, 미'가 쓰였다.

가락이 연접된 음으로의 진행이 많으며 서울, 경지방민요인 경토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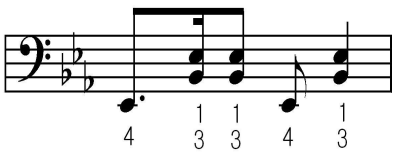
(5) 장단

12/8박자 곡으로 3소박 4박자 리듬을 사용한 굿거리장단으로 홍겹게 표현하였으며 장단과 리듬이 유사하게 사용되었다. 노래의 중간부분에 사물놀이 또는 직접 구음을 하도록 하여 국악적인 표현이 잘 되었고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장단을 익힐 수 있게 하였다.

2) 25현 가야금을 활용한 반주

윗 성부는 오른손으로 뜯고 튕기는 수법과 농현을 넣어 선율을 연주하고 아래성부에서는 왼손으로 아르페지오와 화음을 넣어 굿거리장단을 기본으로 반주한다.

[악보 13], [악보 14]의 반주법을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의 형태로 연주하여 [악보 15]와 같이 반주악보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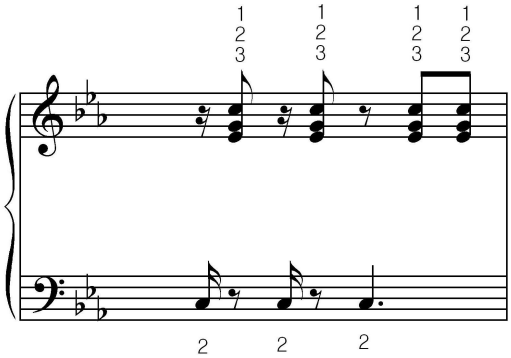


[악보 13] <산도깨비> 왼손 반주

[그림 24] 왼손 4번 뜯기

[그림 25] 왼손 1-3번 뜯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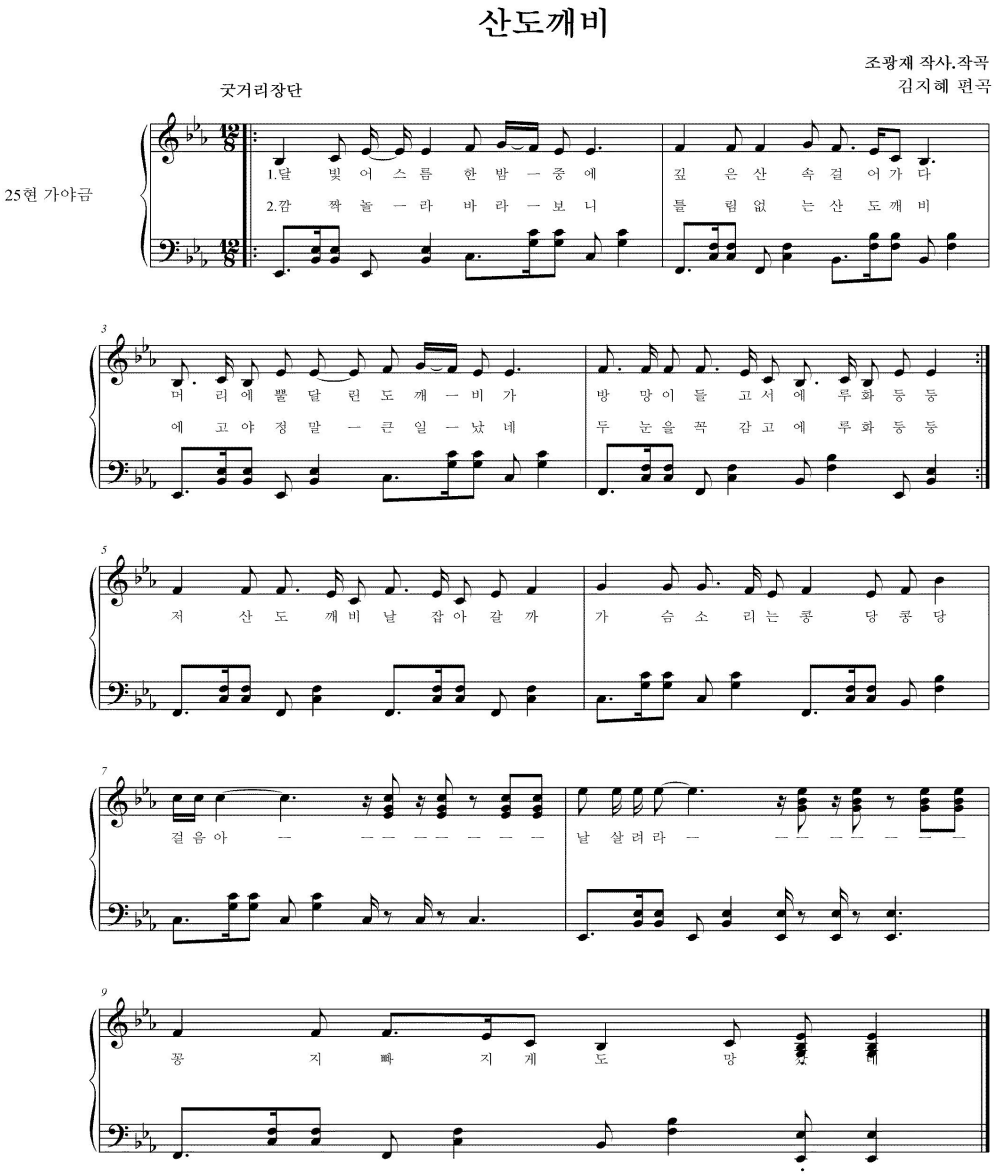
[악보 13]의 반주는 낮은음자리표의 아래첫째 줄의 음을 4번으로 뜯고 둘째 줄의 음을 3번으로 셋째 칸의 음을 1번으로 잡아 동시에 뜯는다. 뜯고 난 후 힘을 풀어준다.



[악보 14] <산도깨비> 양손 반주

[그림 26] 양손 반주자세

[악보 14]의 반주는 왼손2번으로 낮은음자리표 둘째 칸의 음을 잡고 오른손 3-2-1번을 첫째 줄-둘째 줄-셋째 칸으로 잡고 왼손과 오른손을 박자에 맞춰 뜯는다.



[악보 15] 산도깨비 반주악보

3) 교수·학습 과정안

(1) 학습 목표

첫째, 창작국악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둘째, 국악기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2) 지도요소

전통의 국악과 창작국악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고 정의를 내려 본다.

국악가창의 반주악기로 주로 쓰이는 장구를 통해 기본 장단을 안다.

25현가야금으로 선율을 연주하여 정확한 음정을 익힌다.

(3) 지도과정

<표 3> 창작국악 산도깨비 교수·학습 지도안 1차시

대 상	중학교 1학년	차 시	1/2	지도 교사	김지혜
단 원	산도깨비			활동	가창
학 습 목 표	1. 창작국악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2. 국악기 반주에 맞춰 산도깨비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지도 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학습 분위기 조성 *동영상 감상	수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바르게 앉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산도깨비 동영상을 보여준다.	애니메이션을 보며 흥미를 일깨워 본다.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와 수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제시하여 수업의 흐름을 인지시킨다.	학습목표를 큰 소리로 읽으며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인지하고 흥미를 갖는다.	
전개 (35분)	*창작국악정의 알기	전통국악곡인 정악과 창작국악곡 산도깨비를 비교하여 들어보며 차이점을 설명한다.	발표하며 토론한다.	
	*굿거리 장단알기.	굿거리장단을 구음과 장구로 연주하며 기본 장단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무릎장단과 함께 굿거리장단을 구음으로 따라 부른다.	
	*사물놀이로 장단 익히기.	사물놀이악기를 이용하여 장단을 익힌다.	모둠을 나누어 악기를 정해 본다.	
	*음악에 맞게 장단 치기.	사물놀이의 악기별로 특징을 살려 구음을 붙여 장단을 익힌다.	큰 소리로 리듬에 맞춰 구음을 따라 부른다.	
	*노래 익히기.	구음에 따라 각 악기별로 연주한다. 음반을 틀어주고 그 음악에 맞게 연주한다.	자신이 맡은 악기를 큰소리로 구음하며 연주한다. 장단에 맞게 신나게 연주한다.	
	*확인학습	25현가야금으로 제재 곡의 선율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다.	25현가야금의 음색을 들으며 곡을 익힌다.	

		한 장단씩 노래와 악기 반주를 듣고 부른다.	음정에 주의하여 노래 부른다.	
정리 (5분)	*내면화 및 정리	오늘 배운 곡에 대한 내용정리와 소감을 발표하게 한다.	악기로 직접 장단을 익히고 가야금의 연주를 들은 소감을 발표한다.	
	*형성평가	형성평가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제재 곡에 대해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형성평가를 풀며 제재 곡에 대해 정리한다.	
	*차시 예고	다음 차시예고를 한다.	잘 숙지하고 준비물을 메모한다.	

2. 창작국악 <봄> 지도방안

1) 곡 영역별 분석

(1)작곡가 이성복

작곡가 이성복은 경력 30년의 현직 음악교사이다. 그는 1984년 제2회 MBC 창작

동요제에서 '동무끼리'로 입선한 이래 1989년 KBS 창작동요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굴렁쇠', 1990년 MBC 창작동요제 대상을 수상한 '봄', 1998년 EBS 고운노래 공모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우리가족', 2001년 국립국악원 주최 국악동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생일축하 상사도야', 2003년 국악동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골마을'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창작동요제에서 이름이 알려진 작곡가이다.

(2) 반주

굿거리장단의 장구반주에 맞춰 노래 부를 수 있으며 서양작곡의 형식으로 작곡되어 피아노 반주도 잘 어울린다.

(3) 교과서별 분석

이 곡은 금성출판사, 더 텍스트, 법문사 총 3권에 수록되었다. 금성출판사에서는 10~11쪽에 수록되었고 더텍스트는 22쪽에 수록되었으며 법문사는 8쪽에 수록되었는데 제목에 맞게 1학기가 시작하여 수업을 할 때가 봄이기 때문에 계절에 맞춰 앞쪽으로 곡목을 배치하였다.

금성출판사는 바장조 악보를 수록하였고 5음음계를 제시하여 국악의 음계를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굿거리장단을 수록하였고 피아노로 반주할 수 있게 반주악보도 노래악보와 함께 수록하였다.

더 텍스트는 바장조 악보를 수록하였고 시김새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국악기의 구음을 통해 국악기를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였다.

법문사는 바장조 악보를 수록하였고 6/8박자의 기본리듬을 익혀 악곡의 리듬감을 살려 부르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악곡의 반복과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책에서는 국악의 느낌을 살려 곡을 부르도록 제시했다기보다 서양음악화 하여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4) 음계

5음 음계로 '솔, 라, 도, 레, 미'가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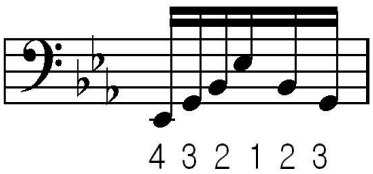
(5) 장단

6/8박자로 작곡이 되었으며 두 마디를 굿거리의 한 장단으로 10장단이 구성되었으며 부점 사용으로 굿거리장단의 흥겨움이 살아난다.

2) 25현가야금 반주

윗 성부는 오른손으로 뜯고 튕기는 수법과 농현을 넣어 선율을 연주하고 아래성부에서는 왼손으로 아르페지오와 화음을 넣어 굿거리장단을 기본으로 반주한다.

[악보 16], [악보 17]의 왼손 반주법을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의 형태로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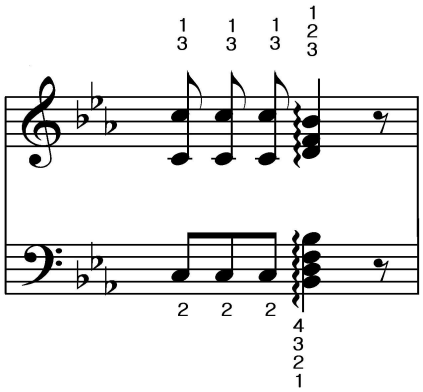


[악보 16] <봄> 왼손 반주

[그림 27] 왼손 4-3-2-1 이어 뜯기

[악보 16]의 반주는 I도 화음을 왼손으로 4-3-2-1-2-3 의 순서대로 코드를 잡

고 4번부터 차례대로 뜯어 연주하며 이때 뜯고 난 후의 손가락에는 힘을 풀어준다.



[악보 17] 봄 양손반주

[그림 28] 양손반주자세

[그림 29] 아르페지오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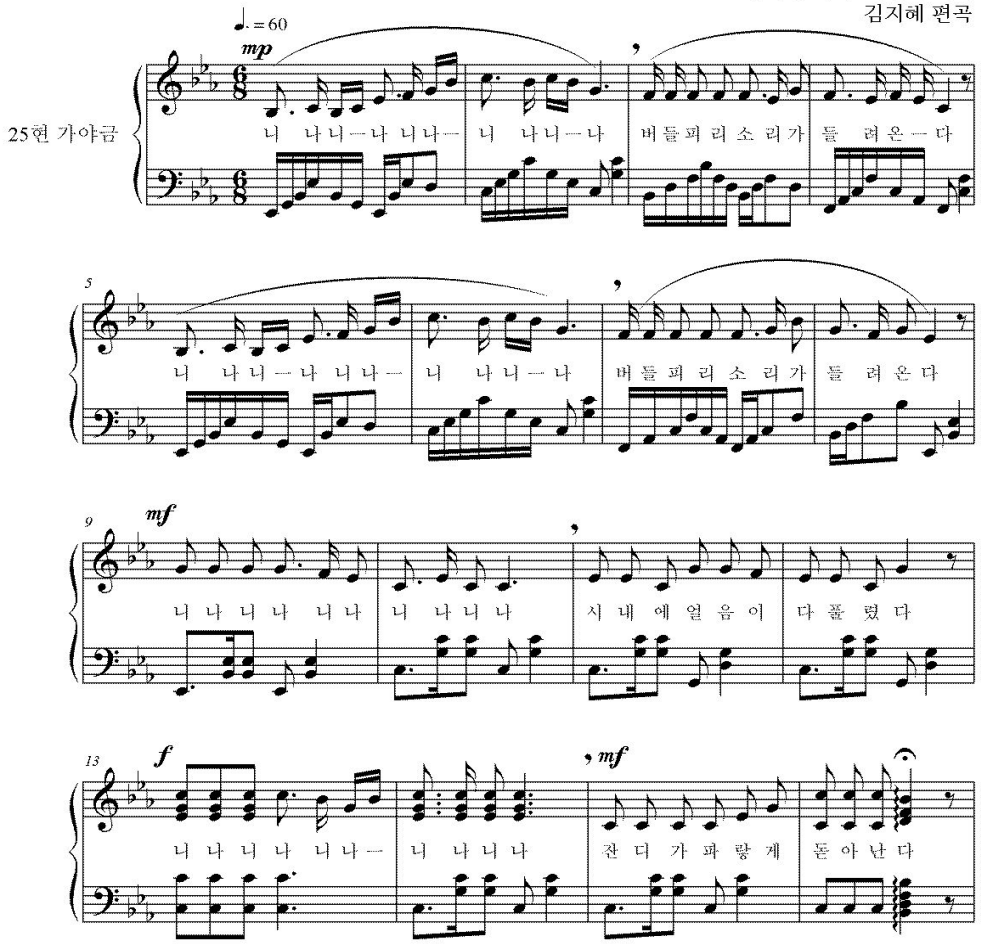
[악보 17]의 반주는 아래성부는 왼손으로 위 성부는 오른손으로 연주한다. 아래 성부의 둘째 칸의 음은 2번으로 잡고 윗성부의 아래첫째 줄의 음은 4번으로 셋째 칸의 음은 1번으로 잡고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같이 뜯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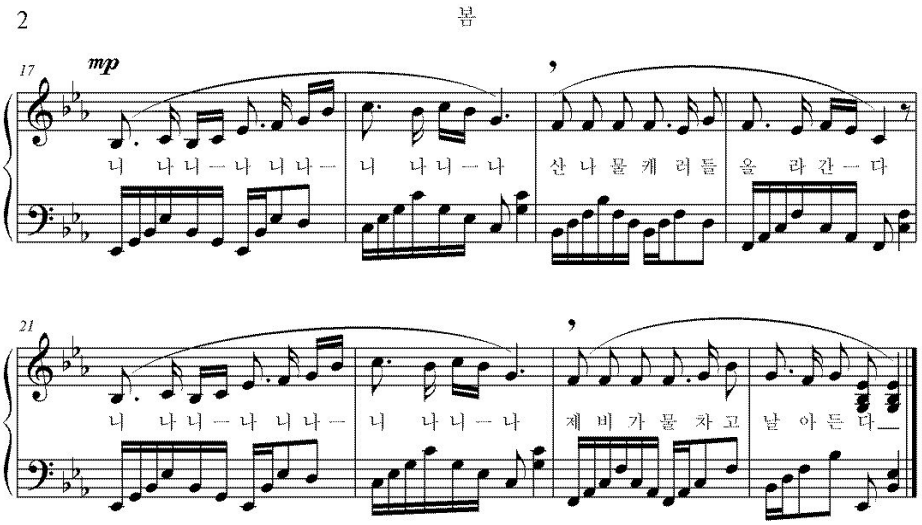
아르페지오의 수법은 아래 성부는 둘째 칸의 음은 4번, 셋째 칸의 음은 3번, 넷째 칸의 음은 2번, 윗 성부 첫째 칸의 음은 1번으로 잡고, 윗성부는 아래첫째 칸의 음은 3번, 첫째 칸은 2번, 셋째 줄은 1번으로 잡고 왼손부터 왼손 4-3-2-1 오른손 3-2-1을 순서대로 뜯어준다.

위 반주를 기본으로 <봄>을 다음 [악보 18]과 같이 편곡하였다.

봄

윤석중 작사, 이성복 작곡
김지혜 편곡





[악보 18] <봄> 반주악보

다. 교수·학습 과정안

1) 학습 목표

첫 째, 25현가야금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를 수 있다.

둘 째, 국악기들의 구음으로 개사할 수 있다.

셋 째, 개사한 구음에 맞춰 시김새를 넣어 부를 수 있다.

2) 지도요소

첫 째, 25현 가야금 선율에 맞춰 민요풍으로 한 소절씩 가락을 익힌다.

둘 째, 시김새를 표현한다.

셋 째, 악기별로 소리를 들려주고 구음으로 흉내를 내어 개사를 한다.

3)지도과정

<표 4> 창작국악 <봄>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대 상	중학교 1학년	차 시	1/2	지도 교사	김지혜
단 원	봄			활동	가창
학 습 목 표	1. 25현가야금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를 수 있다. 2. 국악기들의 구음으로 개사할 수 있다. 3. 개사한 구음에 맞춰 시김새를 넣어 부를 수 있다.				

지도 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5분)	*학습 분위기 조성 *전시확인	수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지난시간배운 노래를 불러본다.	바르게 앉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발성에 주의하여 부른다.	

	*학습목표 제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인지하도록 한다.	학습목표를 읽고 인지한다.	
전개 (35분)	*제재 곡 설명 *제재 곡 익히기 *구음표현하기 *개사하기 *모둠별로 노래 부르기	제재곡인 봄에 대해 설명하고 인지하도록 한다. 25현가야금으로 제재 곡을 연주한다. 한 소절씩 병창으로 연주하며 정확한 음정으로 따라 부르게 한다. 시김새를 표현한다. 국악기의 음색을 들려주고 각 악기별로 구음으로 표현해 본다. 모둠을 나누어 제재 곡의 가사를 악기의 구음으로 개사하도록 예시를 제시한다. 모둠별로 개사한 노래를 부르게 하여 25현가야금으로 반주한다.	설명을 잘 듣고 인지한다. 음정과 리듬에 귀 기울여 감상한다. 가야금의 반주에 맞춰 정확한 음정과 리듬에 주의하여 흥겹게 부른다. 꾸밈 음을 통해 전통음악의 느낌을 안다. 각 악기별 특징을 살려 표현한다. 악기의 특징을 적어보고 각자 좋아하는 악기로 한 소절씩 적어본다.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 한 모둠씩 개사한 노래를 부른다.	

정리 (5분)	*내면화 및 정리	오늘 배운 곡에 대한 내용정리와 소감을 발표하게 한다.	악기로 직접 장단을 익히고 가야금의 연주를 들은 소감을 발표한다.	
	*형성평가	형성평가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제재 곡에 대해 잘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형성평가를 풀며 제재 곡에 대해 정리한다.	
	*차시 예고	다음 차시예고를 한다.	잘 숙지하고 준비물을 메모한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2007 개정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에는 기존 교과서에 비해 국악의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창작국악의 비중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창작국악은 이 시대의 삶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전통국악에 비해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 거리감을 없애고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서양음악에도 옛 음악과 오늘의 음악이 공존하는 것처럼, 국악에도 옛 음악과 오늘의 음악이 공존해야한다.(전인평, 1994: 10).

현재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새로 만들어 지고 있는 우리의 음악들은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 우리고유의 민족음악들로 남는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현장에서 서양가창수업을 지도할 때 기본적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진행하는 것처럼 국악가창수업에서는 가야금이 활용되어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국악의 음색을 바탕으로 곡을 익혀 학생들에게 우리음악을 보다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흥미를 유발함에 있어서 대중에 맞게 개량되어진 25현가야금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지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앞으로의 창작국악가창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 째, 본 연구와 관련된 전문적인 문헌연구를 통하여 창작국악과 가야금의 정의와 그 역사적 흐름을 제시하였다.

둘 째, 25현가야금을 실제 수업에서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악기의 조율법을 예시 악보와 조율악보를 제시하였다.

셋 째, 25현가야금의 연주를 위해 기본적인 수법과 연주방법을 사진과 설명을 통해 제시하였다.

넷 째, 반주악보를 편곡하였으며 연주법을 제시하였다.

다섯 째, 현행 중학교 1학년 16종 음악 교과서의 창작국악이 수록된 양상을 파악하고 가장 많이 수록된 2곡을 분석하고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내용과 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에게 교과과정에 있는 국악가창을 위한 지도법을 비롯하여 국악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실기수업 등 연수를 계획하여 국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도 국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악교육이 국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국악원 (2008). **초·중등교사를 위한 우리 음악의 이론**. 서울: 국립국악원.

김성희 (2006).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창작국악 내용분석.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은경 (2002). **초보자를 위한 25현 가야금 연습곡집**. 서울: 민속원.

김해숙 (2002). **김해숙 25현가야금 연습곡집 '법고창신'**. 서울: 어울림.

남보람 (2009). 창작국악기악곡 수업지도방안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광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문양숙 (2005). 남.북한 개량 가야금의 특성과 연주법.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문예출판사 편 (1987). **조선민족악기총서(5) 가야금**. 서울: 민속원.

성심온 (2000). **가야금 주법의 이해**. 광주: 전남대학교.

송방송 (1984). **한국음악통사**. 서울: (주)일조각.

송희선 (2003). 가야고 개량에 관한 역사적 고찰.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명원 (2002). **교대 사대생을 위한 국악교육지도**. 서울: 국악춘추사.

윤소희 (2001). **국악창작의 흐름과 분석**. 서울: 국악춘추사.

윤중강 (2003). **가야금은 계속된다**. 서울: 새롬.

_____(2004). **국악이 바뀌고 있다**. 서울: 민속원.

이성삼 (1982). **음악교수법(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세광출판사.

이성천 (1991). **나도 국악을 가르칠 수 있다**. 서울: 도서출판 풍남.

이소영 (2005). **한국음악의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서울: 민속원.

이지현 (2003). 25현 가야금 연주곡 개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장사훈 (1993). **국악기의 개량에 관한 연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_____(1984). **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전인평 (1994). **국악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서울: 교육원보.

정길선 (2005).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 작품집1.2**. 서울: 민속원.

한향희 (2003). 개량 가야금의 연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 개량 가야금의 연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 미발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음악교육전공	학 번	2007821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 지 혜 한문 : 金 智 慧 영문 : Kim Ji Hae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금호베스트빌 103동 1803호				
연락처	010-4468-4757 E-MAIL : kukhi09@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25현가야금을 활용한 창작국악 지도방안 연구 영어 : (A) Study on Creative Korean Traditional music Teaching Method Application on 25-stringed-Gayaguem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

2011 년 2 월 일

저작자: 김 지 혜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